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 2004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실용 가정 예배 모범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 ◆ 찬 송 28장 다 같이
- ◆ 설 교 실상 8:1-7 인 도 자
- ◆ 기 도 인 도 자
- ◆ 주기도문 다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다”(설교문)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다.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요구인 것 같지만, 그들의 요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앙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 왕과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싫증이 났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요구에 크게 진노하셨다. “그들이 ...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b).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며 기기에 집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는 무서운 반역행위라는 말씀이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돈, 명예, 성공, 건강, 출세 등이 꼭 있어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안심하는 우리는 아닌가?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옛날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다. 돈이나 명예, 성공이나 건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으며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 걸길로 가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안전과 행복과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우미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하며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라고 고백하며 찬송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

사실 보수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하여

교육관과 선교관의 보수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이전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관과 선교관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최신식 좌변기로 다 교체하였고, 타일과 낡은 배관도 모두 교체하였다. 특별히 교육관의 경우,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소집회실과 반반공부실의 간격을 공사를 다시 하였고, 이전에 교사 전용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개방형으로 바꾸었다.

앞으로도 교회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신속히 개선하여 천국인물 양성과 세계선교사역이 더 힘차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다. 교육관과 선교관을 이용하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의 모든 물품들을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에너지가 낭비되기 쉬운 겨울철이나, 작은 부주의 때문에 소중한 현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란다.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임 후에는 모든 난방기구의 작동이 멈추도록 꼭 확인하며, 엘리베이터의 이용도 신중히 건강한 청소년 및 젊은이들은 2, 3층 정도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니 소중히 여기고 다루며 아껴야 할 것이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교사교육 및 겨울 계절학교 감수회 은혜롭게 마쳐

‘성막’에서 배운 예배의 비밀

은혜 가운데 마친! 고등부 겨울수련회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청기도원에서 있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지라’라는 교어를 앞세우고 참된 예배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의 예배 생활에 대한 진지한 점검과 반성이 있었고, 성막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의 비밀과 예배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 이번에 배운 복음의 진리를 기반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계속 기도로 돕도록 하자. 참고로, 2월에는 각급 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계속 이어진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선교주일(1월 25일)을 앞두고

충현교회는 선교에 대한 사랑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기고 있다. 그런데 선교주일을 한 주 앞두고도 교회에 특별한 행사들이 없는 것을 보며 “왜 이렇게 조용할까?”하고 궁금히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선교주일로 지정하여 지키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저런 행사로 우리의 마음을 분산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열정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처럼(눅 10:39) 충현의 모든 성도들도 선교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발아래 겸손히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에 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양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주간에 다음 주일 설교말씀(주강론 3편)을 미리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선교주일을 준비하도록 하자.

숨은 일꾼들, 보배로운 손길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출 35:21).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일한다. 지난날만 해도 총 27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충현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았다. 특별히 그 중에 오분의 일이나 되는 547명의 손길이 권사님들의 자원봉사였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2004년도에도 교회 구석구석에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었으면 좋겠다.

DISCIPLE OF JESUS CHRIST

“...⁽¹⁹⁾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²⁰⁾ And they immediately left the nets, and followed Him....”

(Matthew 4:17~22)

At or around 30 years of age, Jesus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River (3:13), inaugurated by the Holy Spirit (3:16), and led up by the Spirit to be tempted by the devil (4:1~11). Immediately afterward, “From that time”. He began His ministry and proclaimed God’s messag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v. 17). At the same time His ministry started, He called His disciples(vv. 18~22).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v. 19). He called them not for His personal benefit, like to clean after or serve Him food, but only to make them fishers of men. He called them to follow and obey His Word. He called them to His ministry.

As the Son of God, Jesus came to this earth to do God’s will, and His disciples, in doing God’s will, became children of God. They became children of God because they chose to becom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en Jesus called His disciples, He did not call them based upon their qualifications. When we choose people for big ministry jobs, often times, we look at their religious, educational, and family backgrounds. We want someone who not only looks good on paper, but also in person. We look for someone who has a dynamic personality, and is a good speaker. We want the best human conditions. Jesus walked along the Sea of Galilee and called a bunch of ordinary people to become His disciples. They were just common people, doing their regular everyday work. He did not interview them; He just called them. This is the grace of God.

Jesus called, “Follow Me.” He gave the order, but it was up to the individual to respond. Jesus does not make you follow Him. You have to decide and act. Many people, when called, say they need time to think about it. Jesus’ disciples immediately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ir focal points and followed Him. Christians need to focus on His order. If we do not leave our focal points, we cannot follow Him. As a Christian, you do not belong to yourself; you absolutely belong to Christ. His life and His plan have to be your life and your plan. We have to abide in Him and listen to the Holy Spirit’s voice. If we separate ourselves from Jesus, we cannot hear the Holy Spirit’s words. The closer in communion we are with Jesus, the more powerful our Spirit becomes. In His power, we can fulfill His order,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Mt. 28:19). He teaches us everything we need to know,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and He promises to be with us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11:29; 28:20). If you follow Him, you will be His disciple. His love will guide you all the way to heaven,

not by your will, but by faith.

Jesus also said, “I will make you”. Here is something He does. Following Jesus involves effort on our part, but becoming His disciple requires effort on His part. We cannot make ourselves His disciples. We have to be made by Him. We have to be changed, converted, by Him. Only He has the power to do this. Many people think that a good Christian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 will make someone a disciple. This is not true. The Creator’s hand, Jesus Christ, makes Christians and leads them by His indwelling Spirit.

Jesus clarified that He would make His disciples “fishers of men”. The result of following Jesus and He changing you is that you become a fisher of men. Many Christians say they are born again, followers of Christ, but what do they do? They get involved in church activities, but they do not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They never become fishers of men. People who save souls are like fishers of the sea. Fishermen depend upon the sea. Their character is diligent, intelligent, preserving, and watchful. They work night and day, and they work hard. They are self-denying, daring, and not afraid of the dangers of the sea. They are always successful, always catching fish.

My dear friends let me ask you, do you really love the souls of others? Do you think that just one soul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s on this earth? Does your heart have the desire to keep watch and catch the poor souls that God sends your way? Are you really a disciple made by Jesus’ hand? Your leadership does not come from birth, but comes from God when you decide to follow Jesus Christ. You cannot make or train yourself to become a fisher of men. Only Jesus can make you His disciple. Today’s short statement by Jesus,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has such important meaning. I hope you grasp its significance, for truly it is a wonderful privilege to be a disciple of Jesus Christ. Those who follow Him are children of God, specially made by the Creator’s hand. Are you excited about following Jesus? Be humble. Start moving. Jesus will help you share the gospel. He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As we start this year of our Lord, 2004, I want you to be a disciple of Jesus Christ. He has called you. Now is the time for you to follow Him wholeheartedly. You have to move, and then leave it up to Him. Listen and let the Holy Spirit guide you. It will end up that your heart will desire to catch lost souls. My heart for this church is to have at least 7,000 people go on short-term missions around the world. The boats are ready, the opportunities are available, and all we need are fishers of men. 卐

다움주일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¹⁹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²⁰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 4:17~22)



김성관 목사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삼십 세 기광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마 3:13),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마 3:16).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마 4:1~11). “이 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17절 참고). 바로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마 18~22절). 그리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종을 들 하인이 필요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공생애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발하신 방식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방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훌륭한 자격을 보고서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선할 때 지원자들의 신앙 배경, 학력, 가족 환경 등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서류상으로 하자고 없고 훌륭한 조건을 두루 갖춘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목사를 찾습니다. 사람들을 확 위임하고 맡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 하는 목사를 찾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조건을 잘 갖춘 목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면접고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붙잡아 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해 볼 여부가 필요하더”며 주춧했습니다. 반면에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따를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말을 하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섬을 얻으리라”(마 11:29). 또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의 사랑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역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양질의 기독교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실 수 있고, 또 배주시는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거둬들였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니까?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비슷합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일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인내심이 많고 신중합니다. 어부들은 밧줄을 가리지 않고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물고기 잡는 일의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뎌내며 용감한 사람들로써 위험한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잘 낚으며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정말 믿습니까? 거대한 죄인들을 보살피고 구원하려는 열망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자인가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창조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2004년도의 첫 달을 보내면서,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충헌 교회를 향한 저의 소원은 최후한 절친 명이 천 제에게 담긴 사랑의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열매든지 바랍니다. 사랑을 낚는 어부만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아멘

정로칼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교회



이 훈
(장로, 찬양·재정위원장)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찬양교회 위에 5대 목표를 허락해 주시고 금년도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충성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찬양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여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한해가 되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8:3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움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거룩한 위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예배시간에 단상 위에 등단하는 사도자와 설교자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가운을 입는 것과 안대원 및 헌금위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과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순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과 정로들에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찬양대원들도 영적인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며 연습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오래하신 교회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함은 물론 찬양의 결과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찬양을 할 때나 특히 독창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기 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의 무엇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구를 위해 독창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찬양할 것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꾀조 있는 기도요, 감사의 표현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고모고 회개하는 준비 없이 찬양을 드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완전 모습을 나타내어 자기 위우로 항상 겸손하게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제1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어린 학생들로부터 제2교육위원회 소속의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던 복음송을 이제 별로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르기 시작한 복음송으로 말미암아 찬송가는 어른들처럼 찬송가 이상이나 부르는 것만 중시하던 아이들에게 찬양을 드리고 청년부 회원들은 자기들의 기교에 잘 맞는 복음송을 자신들이 주제가 되어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찬송가는 예배는 그리스도분하고 자기들로는 상관없는 것처럼 작가를 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보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기들만의 분위기에 맞추어 가는 열린 예배나 실험 예배 심지어 예배인지 연주장인지 구분 안 된다는 세속과 속에서 자기노릇에 빠지거나 마는 안타깝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송 자체를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송은 은혜로 작사 작곡되어 전 인간의 한 평생을 이룰만한 예배를 묵직하게 이끌어 가는 집회 동요 그 목적인 바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다수의 교회와 예배에도 이런 음악을 무엇보다도 사용하고 있어 예배의 질과 경건성을 상실하고 가고 있으며, 또 그런 교회와 젊은이들은 찬송가가 부르기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은혜가 멀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능한 한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 찬송을 먼저 배워 익숙하게 부르게 할려고 애쓰는 경건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 또한 그렇게 부르기 위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송가 안에든 복음송가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 한다면 찬송가 속의 복음송가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성도들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검증된 곡들이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교회는 김성관 위임목사님께서 오신 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내어 매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진 길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 뿐이라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므로 자연스럽게 온 성도들은 물론 교회 학교와 찬양대에서 찬송가만 부르게 되었고 복음송에 대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신앙의 척도가 한 단에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변화와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이 체계적인 신앙의 변화가 찬양대와 찬양대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될 줄 압니다.

찬양위원회는 찬양대 8개와 오케스트라 5개 및 2개의 연주대로 구성되어 전체 대원수는 1,330명입니다. 또한 찬양감독, 전임지휘자, 전임독창자 제도를 두고 전임자들에게 전적으로 교회의 예배음악만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헌신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예배마다 찬양대 지휘는 물론 전 찬양, 헌금송, 금요찬양집회 찬양, 절기특별 찬양 등의 순서와 준비를 담당하고 위임목사님 목회 방침에 부합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또한 훈련을 앞장서서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준비하며 훈련이 되어야 영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찬양위원회는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먼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모든 찬양대와 연주대의 앞장세운 대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과 대원들이 책임에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시작 15분전에 찬양대석에 입장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마치고 피정송을 부를 때까지 영적으로 긴장하여 신령한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15분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 찬양은 한국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중요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전 찬양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찬양에 함께 동참하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는 산제사의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요찬양집회 때마다 온 성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김성관 위임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은 3천명 전후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앞장세운 목사님을 따라 온순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리까 생각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으며 이 새 찬양이 어떻게 될까와 더 전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오시는 날까지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영적인 찬양을 드림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한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산제사가 계속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획위원회에서 세운 2004년도 예산을 당회의 승인과 함께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았습니.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는 하나님께 충헌교회와 함께 해주시어 책정된 예산보다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 이 수임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집행하여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 세계에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003년도의 예산 집행 사항 중 몇 가지 특기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을 절약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 절약한 예산을 단기선교사역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믿음으로 밀려나서자 작년에 약 1,500여명의 단기선교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작년보다 더 절약하고 아껴서 더 많은 단기선교사를 파송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20여년이 지나서 일개 모르게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작년에는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금년도에 융합시설과 본당의 지하실 방들의 리모델링 등의 수리와 선교관의 부서들이 사용하는 방들의 통합 등 작년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교역자들의 사택 난을 해결하기 위해 6층 19세대의 빌라를 건축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천국 일꾼을 키우자는 목표로 따라 작년 전·후반기에 중·고등학교, 대학원, 대학원생, 외국인 근로자 등 400여 명에게 찬양 찬양곡을 지급했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대내외의 구제와 특히 어려움 폭우로 인한 재난 시에 적절 쉼과 부식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한 해 동안의 교회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성껏 헌금과 기도로 더욱더 찬양한 주님 하나님께 감사(본당 3층)에서 회계부 장로들과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무국의 실무자들의 정성 어린 수고와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하나님께 드릴 교회의 수입을 책정된 액수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길 믿으며 무엇보다도 지출 시에도 긍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5대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을 묵상하고

실패한 이에게

조상 인 (청년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수 8:1).

아이성 공격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패전의 이유가 자신들의 교만과 부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자신보다 훨씬 약한 아이 군대의 공격에 동료들이 죽고, 아간이 대포로 처형되는 아픔도 있었습니

다.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았지만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다시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못박혀 돌아가신 후, 낙심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처절한 비참함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제 백성이 부인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슬픔과 허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자신있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반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에 쌓여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이성의 패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요 21:17)라는 진실된 신앙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시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라”(수 8:18)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두 손을 거두지 아니 하였고”(수 8:26)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잘못 때문도 아니며, 오로지 부패하고 부정한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삶 속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보여지는 신앙생활로 인해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성 함락의 기쁨에 가려진, 정말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이 시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아니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김 언 정 (교사, 소년부)

학교 전도를 시작한지 7개월이 되었지만 그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했었는가? 돌아보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전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허공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이 분명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 나는 아이를 가리지 못하는 여지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한나처럼 마음이 슬펐다. 나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려주시신 지상명령을 생각했다. 첫째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열미버린 영혼을 찾아 가야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 전도는 단순히 사랑 밧게를 들고 가서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며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 홍보수단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행과 본질을 가르치시고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며 그 분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전파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들이 되셨다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셨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 계명을 받들어 나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전하기를 원한다. 참된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계시도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를 전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고 싶다는 소망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우시는 성품을 닮고 싶다는 소망이었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자신 성품을 닮고 싶다는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임을 깨닫고 저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약한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없는 제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왔고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피가 저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느낄과 동시에 십자가는 저에게 또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전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뿐 하고 계십니다.

또한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말씀하심이다. 십자가 뒤에 산 소망이 있고 참 영광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제가 손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의 참 기쁨임을 알려 주십니다. 아직도 저는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환경 가운데 불행치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선민 (장학생)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라】 ③

그아비 때에 찢든 우물을 다시 찢으니 (창 26:17~18)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물 밑바닥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고 오물을 던져 넣었습니다. 구원의 생명수가 감추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감추어진 생명수가 대해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이 찢든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잡동사니와 쓰레기와 그 우물을 메우고 있던 모든 흙을 걷어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결과 같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추악한 소행으로 인해, 감추어진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없으니”(딤후 2:19a)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의 기초인 영원히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성경의 근본 전제로 부인합니다. 자신들의 행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런 신은 거짓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곡한 진리는 자신들이 철저히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자기부인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인, 예언자의 진노 또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호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으려면 먼저 호러한 그릇을 제거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흉이나 쓰레기로 덮어버린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마음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흙과 잡동사니로 생명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부인하고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 아오십시오.

(최충철 목사·종동1부 지도)

● 복음의 길을 걸음시다 ●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요 14:6)

죄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전 3:11). 그러나 많은 인생들이 그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있기 때문이다. 공생애를 거의 관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치소를 예비하리 가도나 거저 너희를 위하여 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는 말씀을 하셨다. 평소에 의심 많던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한 영생의 말씀을 보여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는 신년 예배 때에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순종해야 할 말씀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많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걷는 그 길이 주님 뒤를 따라가는 길임을 확신하고 걷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길이 성령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성공과 행동을 보장해주시는 분이로서 믿고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주님에게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좌, 우편을 이야기 할 정도였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막 8:34; 눅 9:23). 복음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은 자기를 부린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빌 2:5-8).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전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게 할 때에 이 땅의 영광과 성공은 보장될지언정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참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남보다 자기를 부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길을 걸을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요 14:6)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정현민목사, 교구원회 지도자

'은퇴'라는 향수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영원하신 하나님께 공물을 호소하며 인간의 죽음의 선고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둡고 피로로된 격동의 2003년이었고 교회적으로는 열방을 향해 선교의 불꽃을 외쳤으며 1500명의 선교의 역군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한 아주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바울사도는 감대에 대한 보지치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결사같은 후배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 그렇습니다. 내재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말씀으로 새로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인지요? 누구냐 자기자리에서 많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면 끝이 보이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겠지요.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것에 갇혀 살아가던가 주님을 기쁘게 해 할 것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은퇴하였으나 마음 갈라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분까지 교사와 부지역장 봉사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직 그 길! 십자가의 길만을 년수와 관계없이 가립시다. 충원의 은퇴장로, 은퇴권신님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쫓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사 40:8).



민 병 인(은퇴권신, 3교구)

♡ 세례를 받고 ♡

형식적이던 신앙에서 벗어나

유 나 연 (대학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별 생각 없이 다녔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시절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교회에 갈 나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막상 세례를 받았다고 결심한 후에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강도도 없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다고 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새삼 알게 되었고 예전의 생활을 회개할 시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세례식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난 수도 있었지만, 그 의식 속에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안 것 같습니다.

세례를 마친 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물밖에 대 직접 성찬에 참석하고 보니 예수님의 죽음과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더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다음 주일 찬송.....

286장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송은 1938년 하티 벨 알렌(Hattie Bell Allen)이 작사했고, 같은 해 미국 침례교회 음악목사 베이스 벤자민 맥킨니(Baylus Benjamin McKinney, 1886-1952)가 작곡했다. 맥킨니 박사는 루이지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남서부 침례교 신학교와 씨켈 마이어스 음악학교를 마쳤다. 그리고 1942년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9년부터 1932년까지 모교인 남서부 침례교 신학부에서 종교음악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침례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그는 철저하게 교회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많은 성가를 작사 또는 작곡하였다.

1절: 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제 막 시작되었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듣지 못한 그들이 주의 말씀 모르고 죽게 버려둘 수는 없네

2절: 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죄중에 빠지서 죽어가는 못 백성 회개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메세지 보내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구원하시라 그들 위해 죽었으니 그의 사자 보내 사람의 선물 전해주시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네

3절: 온 세상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의 사자들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이요, 주의 소식 가지고 멀리 못가면 소식 듣고 어디서나 증거하는 사자들 위해 기도하리라.

후렴: 우리는 주리라, 기도하리라, 온 세상 만민이 구세주의 사랑 알도록 매일 증거하리라.

올해도 우리에게 복음을 열방에 전하도록 은혜를 주시길.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복음의 빛진 자의 심령으로 이 찬송을 간절히 불러야 한다.

*이 찬송가 가사는 원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출판 성도들도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새 · 가 · 축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0	문순소	1	청년2부	구영숙(17)	77	최정혜	19	대학부	
71	박영숙	9	청년2부	김용숙(6)	78	한초원	19	대학부	서준성(1)
72	이경일	9	청년2부	박승일(8)	79	박영선	19	청년부	한만교(18)
73	정은숙	17	청년2부		80	유하나	19	청년부	
74	김희정	19	고등부		81	정혜미	19	청년부	
75	조주원	19	고등부	오민수(4)	82	권재원	19	청년2부	이현희(3)
76	박미영	19	대학부	김은수(19)	83	최희선	19	청년2부	최영덕(18)

※ 송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